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이 남긴 것

경영학과 함유미

작년 1월,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갔던 때가 생각난다.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럽친구들은 내가 속한 ‘아시아’에 대해 궁금해 했고,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많이 물어보았다. 친구들에게는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지만, 막상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하니 막상 내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왜 사이가 좋지 않아?”라는 물음에 “그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까지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럼 최근의 교류는 어때? 내가 알기로는 너희 독재 정권 때~”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면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또, 한번은 한 중국친구가 “그런데 너희는 왜 김치가 너희 나라 것이라고 우기는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건데 사실 누가 시작한 건지도 모르잖아.”라고 말해서 싸울 뻔 한 적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원조야.”라는 근거가 빈약한 말 뿐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역사를 잘 모르고 국제 관계를 잘 몰라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외국에 나가니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아쉬움을 갖고 귀국했을 때,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을 보고 수업계획서도 보지 않은 채 수강신청을 했다. 한국 사람이니 내가 속한 아시아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수업은 매주 다른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까닭에 매번 조금씩 다른 과목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4학년이 되고부터 강연을 따로 찾아들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던 터였다. 주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전반적인 한, 중, 일 관계와 중앙아시아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본 지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경제나 지역연구 등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강연자 분들께서 유창한 한국어로 강의하시거나 질문 답변까지 직접 하실 때는 놀랍고 신기했다.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모든 강의가 다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강태웅 교수님의 영화를 통해서 본 한중일의 문화 교류라는 주제가 매우 참신하고 흥미로웠고,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많았다. 수년 전 한일합작, 한중합작 영화를 봤던 기억과 맞물려 공감할 수 있었던 강의였다. 시대 별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강의해주신 아베 마코토 선생님의 강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일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 이애리아 교수님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강의는 한중일보다 더 생소한 아시아 지역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스미가와 선생님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의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미야지마 교수님의 유교적 근대와 일본사 연구는 어려운 강의였지만 그래서인지 더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맞는 뿌리를 정립해야 한다며 ‘originality’를 강조하신 하용출 교수님의 강의, 한국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의 정책에 대해 강의해주신 GONG Keyu 교수님의 강의도 좋았다. 다만 한국어로 강의하시거나 중국어 강의가 통역이 되었다면 더욱 그 깊이

가 와 닿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웠다. 우리학교 교수님들께서도 강의해주셨는데, 많은 준비를 하시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해주셨다. 김종식 교수님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강의해주신 덕분에 어떤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왕희 교수님께서도 동아시아지역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글로벌 가치사슬과 대략적인 동아시아 무역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또, 박성빈 교수님께서 한일 정치문제와 금융스와프로 대표되는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강의 해주시며 한일 문제의 현안에 대해 잘 정리해주셔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다.

한정된 강의 안에서 많은 내용을 담다보니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한 강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시아 공동체에서는 한중일이 중심이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동남아 국가들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최근에 중국에 있던 일본 기업의 25%는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중국이 내수에 보다 힘을 쏟고,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고,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은 생산기지로서 동남아 국가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업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집중되는 제조업체와 동남아 경제상황, 한중일과의 관계를 다룬다면 더 풍부한 수업이 될 것 같다.

아시아공동체론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수업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으로 리포트를 쓰다는 것은, 원래 글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근 1년간 손으로 긴 글을 쓸 일이 없었던 나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꾸준함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강의가 아닌가 싶다. 요약물 위해서는 강의노트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했고, 무엇보다 수업에 빠질 수 없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이 세 가지 있다면, 첫째가 글을 많이 쓰는 훈련을 한 것이다. 한 학기동안 학술회의를 포함하여 수업을 듣고 쓴 글을 보니 11개나 된다. 혼자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안 쓰게 되는데 수업을 통해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 여전히 글쓰기는 어렵지만 많이 써보는 것이 글을 잘 쓰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임을 고려하면 쓰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에세이를 쓰기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강의를 듣고 느낀 내 생각을 쓰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다. 쓰다 보니 궁금한 것이 더 생기기도 했고, 주제와 관련된 최근 뉴스는 없는지 찾는 과정에서 더 공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고, 미리 질문을 준비해가기도 했다. 평소에도 질문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 겸 질문을 준비할 시간을 주신 덕에 더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고자 항상 고민했다.

이 강의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자꾸만 욕심내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학금이 초반의 동기부여가 된 것은 맞지만 그 후로도 꾸준히 열심히 에세이를 쓸 수 있었던 데는 이 수업이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매 강의마다 최대한 많이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속한 아시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후배들은 이런 강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원아시아 재단의 후원이 끝나도 이런 식의 옴니버스 강의를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다. 끝으로 이 수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